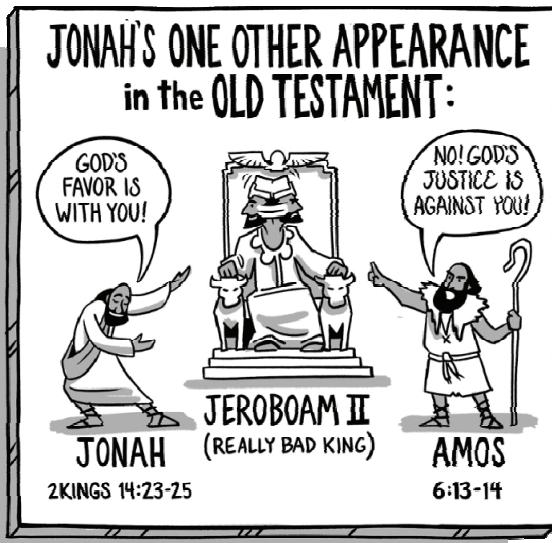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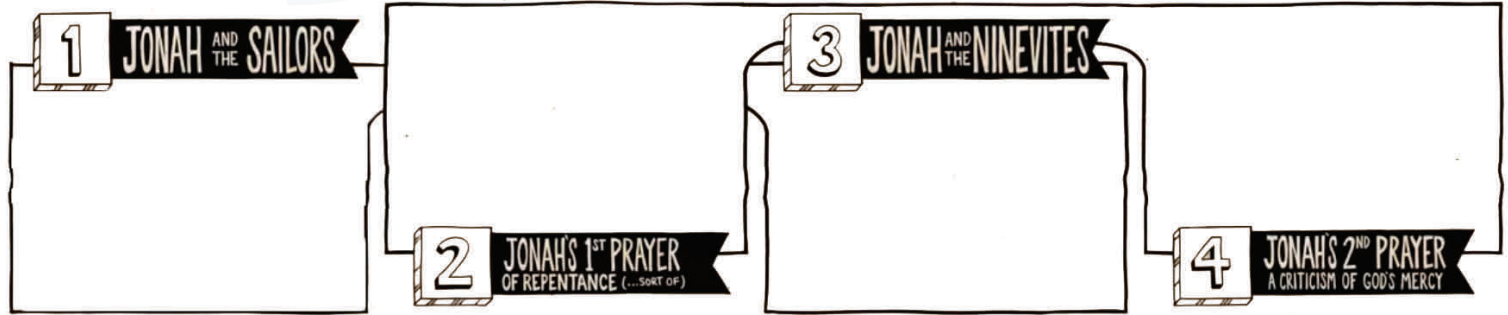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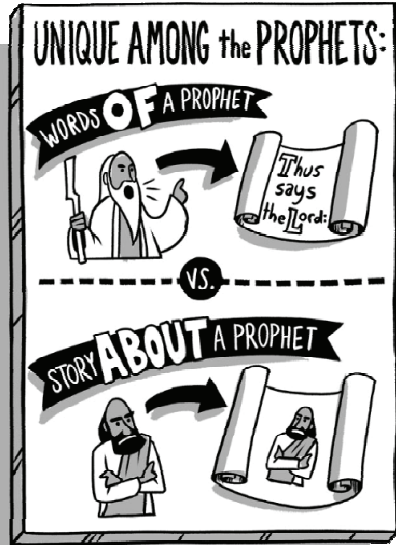


요나 Jonah

JONAH

THE SUBVERSIVE STORY OF A REBELLIOUS PROPHET WHO HATES GOD FOR LOVING HIS ENEMIES



1. 요나서 소개와 시대 배경

요나서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반항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상식/예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 매우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인데, 이 책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좀 치사하고 고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구약 다른 곳에서 한번 더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 하나였고, 요나는 그 왕의 편을 들어 예언했습니다. 전투에서 여로보암 2세가 이길 것이고, 이스라엘 북방 경계를 이루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왕하14:23-25).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2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요나의 예언을

뒤집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여로보암이 모두 잃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암 6:13-14). 그래서 요나서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2. 요나서의 구조

요나서는 아름다운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학적으로 짝을 이루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만납니다. 먼저 선원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교도들의 겸손과 회개'가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2장과 4장은 요나의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꾸짖는 기도입니다.

3. 요나서의 문학 형식 : 풍자

이 책의 세심한 구성에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이야기 전개가 더해집니다. 이야기 전체는 전형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실제로는 부드러운 회개의 마음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살륙을 일삼는 제국의 왕은 요나의 겨우 다섯 마디밖에 안 되는 설교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짐승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풍자'라고 부르는 문학 양식과 일치합니다. 풍자에서는, 잘 알려진 익숙한 인물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유머와 반어법을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합니다.

4. 요나와 선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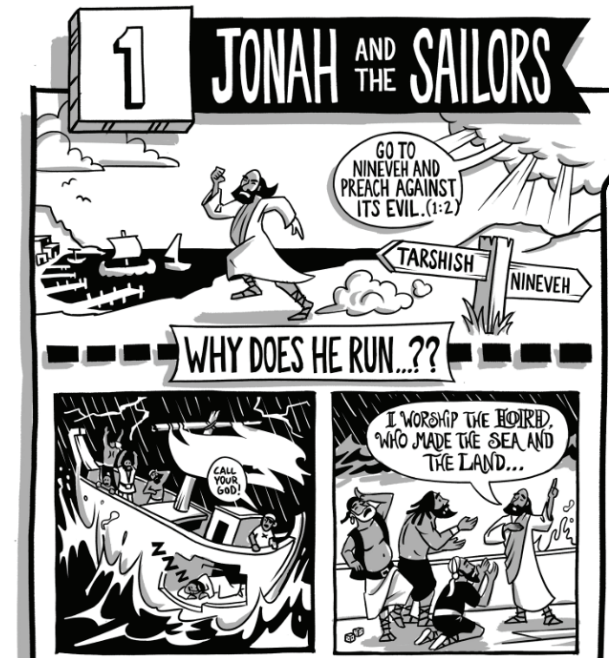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 그러나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는 대신,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가능한 한 서쪽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도망치는 것일까요?

두려웠을까요? 그저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는 아직 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교도 선원들이 가득찬 배에 올라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갑판 위의 선원들은 일깨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신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별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이 사단의 원임임을
밝혀냈습니다.

요나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요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적인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헛웃음 나는 말입니까?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러한 하나님으로 부터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을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요나는 “나를 바다 속에 던져 죽이”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멋져 보이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을 곧 알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피를 이 죄 없는 선원들의
손에 묻히고 그들이 요나를 죽이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선원들은 죽이기를
꺼렸고, 심지어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내 폭풍은
잠잠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요나와 다르게,



선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5.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요나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요나가 바다로 가라앉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상한
바다 속 무덤을 준비하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요나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뒤엎어 집니다.
요나의 바다 밑 죽음은, 그가 생명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물고기 배에 갇혀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원합니다.



3 JONAH AND THE NINEVITES



JONAH'S MEANING:
"OVERTHROWN"
"DESTROYED"
(SEE GENESIS 19:21)

"OVERTURNED"

WHAT HAPPENED:
"TRANSFORMED"
"CHANGED"
(SEE 1 SAMUEL 10:6)

5. 니느웨로 간 요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으신데요, 고래가 요나를 땅으로 토해 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3:2)는 사명을 주시고, 요나는 이에 동의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여서, 다 돌아보려면 걸어서 몇 일이 걸립니다. 요나는 도착한 첫 날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전복될 것이다."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또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뭔가 빠져 있습니다.

- 니느웨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 누가 그들을 뒤집어 엎으실 (/멸망시키실)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는 그는 메시지를 방해하려는 태업

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니느웨가 확실히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섯 단어의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의 왕과 그 소들까지 포함해서 전 도시가 애통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재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히브리 단어는 **נָפַח** 인데, "전복시킨다", 즉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뜻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는(transform) 뜻도 됩니다. 즉, 뒤집혀서 정반대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시 66:6).

4 JONAH'S 2ND PRAYER A CRITICISM OF GOD'S MERCY



그리고 재미있게도 요나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이 변화된다는 뜻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니스웨 백성들이 뒤집어져 변화했습니다. 요나의 적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6. 분개하는 요나와 참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것이 한데 모입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찌찌거리며 두 번째 기도를 내뱉습니다. 먼저 1장에서 왜 도망갔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하나님께 말합니다. 두려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4:2).

정말 놀라운 것은 요나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을 그대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모욕적인 투로 하나님께 쏘아 붙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출34:6) 어떻게든 불의한 니스웨 백성들을 용서하려고 방법을 찾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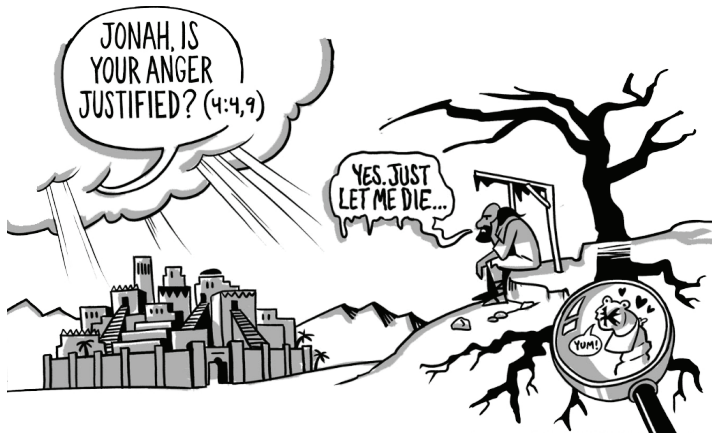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요나는 그 대화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적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화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요나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혹시 압니까, 니스웨 사람들이 자신들이 회개한 것을 후회하고 그 결과 불심판을 받게 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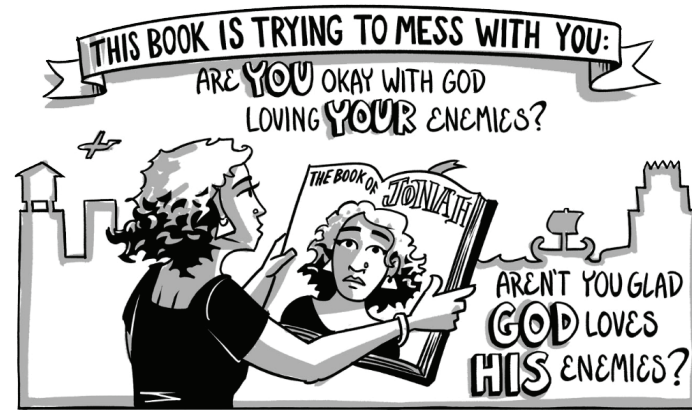
7. 넝쿨 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은 정말 기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넝쿨 식물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이 녀쿨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 녀쿨을 씹어 먹게 하시고, 요나는 그들을 잃게 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또 다시, 그의 분노가 옳은 것인지 물었고, 이에 요나는 되받아 소리칩니다. “그렇구 말구요. 저를 죽게 해주세요!” 요나가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녀쿨 사건을 통해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 그 녀쿨을 마음껏 누렸지만, 이 녀쿨을 아끼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래도 사람이 녀쿨보다 좀 더 귀하지 않니?”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로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도 요나가 녀쿨에게 느꼈던 동일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요나서의 복음

이 책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실 이 책을 통해 읽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셔도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 책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장 악한 부분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까지도 참아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이야기는 복음의 메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광대하셔서 우리 존재의 핵심까지 파고 들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UNIQUE AMONG THE PROPHETS:

WORDS OF A PROPHET

STORY ABOUT A PROPHET

JONAH'S ONE OTHER APPEARANCE in the OLD TESTAMENT:

GOD'S FAVOR IS WITH YOU!

NO! GOD'S JUSTICE IS AGAINST YOU!

JONAH 2KINGS 14:23-25

JEROBOAM II (REALLY BAD KING)

AMOS 6:13-14

PROPHET WHO REBELS

PAGAN SAILORS WHO REPENT

JONAH

THE SUBVERSIVE STORY OF A REBELLIOUS PROPHET WHO HATES GOD FOR LOVING HIS ENEMIES

DISTINCT NARRATIVE STYLE:

EXTREME CIRCUMSTANCES

Satire

HUMOR AND IRONY

POWERFUL KING WHO HUMBLING HIMSELF

EVEN COWS REPENT!

THIS BOOK IS TRYING TO MESS WITH YOU:

ARE YOU OKAY WITH GOD LOVING YOUR ENEMIES?

AREN'T YOU GLAD GOD LOVES HIS ENEMIES?

1 JONAH AND THE SAILORS

GO TO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S EVIL. (1:2)

TARSHISH

NINEVEH

WHY DOES HE RUN...??

I WORSHIP THE HEAVS WHO MADE THE SEA AND THE LAND...

CALL YOUR GOD!

OH GREAT! DON'T LET HIS BLOOD BE ON OUR HANDS!

THIS SHOULD WORK.

2 JONAH'S 1ST PRAYER OF REPENTANCE (...SORT OF)

THIS MEANS CERTAIN DEATH!

NEVER TECHNICALLY REPENTS, BUT...

THANKS GOD FOR NOT ABANDONING HIM AND...

PROMISES TO OBEY FROM THIS POINT ON.

BLECH!

GOD'S CINDY RESPONSE

3 JONAH AND THE NINEVITES

GO TO NINEVEH AND PREACH WHAT I TELL YOU. (3:2)

NINEVEH MORE NINEVEH

A SHORT, ODD SERMON

no mention of:

- * NINEVEH'S SIN
- * HOW TO RESPOND
- * GOD!

IS THIS PROPHETIC SABOTAGE???

NEVERTHELESS...

FORGIVE US, OH GOD!!!

FORTY MORE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URNED!

JONAH'S MEANING: "OVERTHROWN" "DESTROYED" (SEE GENESIS 19:21)

WHAT HAPPENED: "TRANSFORMED" "CHANGED" (SEE 1 SAMUEL 10:6)

OVER TURNED

4 JONAH'S 2ND PRAYER A CRITICISM OF GOD'S MERCY

HERE'S WHY HE RAN:

I KNEW YOU ARE COMPASSIONATE AND LOVE TO FORGIVE! (EXODUS 34:6)

JUST KILL ME NOW...

JONAH, IS YOUR ANGER JUSTIFIED? (4:4,9)

YES, JUST LET ME DIE...

AREN'T HUMANS MORE VALUABLE THAN VINES?

SHOULDN'T I BE CONCERNED ABOUT NINEVEH, THAT GREAT CITY?

THE END.

created by the Bible Project